125회 여름대공연 기획 인수인계서

62기 이채연

0. 시작하며

어쩌다보니 작년에 여름대공연에 이어 두 번째 기획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모든 공연이 그렇듯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잘 진행됐다고 생각했던 점들도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 내용과 타임라인 등은 123회 여름대공연에 아주 잘 적어 놓았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느꼈던 것 위주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연 전

- 연출, 조연출과 이야기하며 전체적인 공연의 타임라인과 외부극장 여부, 공연진 인원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조사 때 기획팀 인원이 과도하게 많아 불가 피하게 조정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저 포함 8명이서 기획팀이 되었습니다.
- 공연진이 확정되면 공연진 톡방 개설 후 시파티 수요조사, 장소 예약
- 모임통장 개설, 초대
- 공연진 연락망 수집
- MT 공지, 투표, 엠티비
- 대공연 용 노션 정리 (원래 공연진끼리는 구글 공유 드라이브를 사용했는데, 학교계정의 구글 공유드라이브 기능이 사라져 노션을 이용했습니다. 다른 공유 플랫폼을 사용하셔도
 좋고, 노션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번 공연에서 사용하던 폼을 드리겠습니다)

2. 공연 준비 기간

1) 예산 관련

- 카카오 모임 통장으로 예산관리
- 지출 시 그때그때 기록해두면 나중에 편함
- 영수증 최대한 모아두기
- 되도록이면 공연카드로 직접 결제

2) 키스탭 회의

- 이번에는 팀장과 팀원 한 명, 팀 당 총 두 명이 키스탭 회의 참여함
- 기획팀장은 키스탭회의 전 장소예약 필요
- 이번 키스탭 회의는 율전에서 진행했어서 디도 스터디룸을 빌림
- 공연 전 키스탭, 연출진과 미리 얘기해서 키스탭 회의 시간과 장소 (명/율)을 정해놓으면 좋을듯

3) 팜포

- 기획팀원이 팜,포 모두 디자인 담당해서 수월했음
- 1차 마감, 2차 마감 기간을 정해놓긴 했지만 그때그때 톡방에 올려 연출진에게 즉각적으로 피드백 받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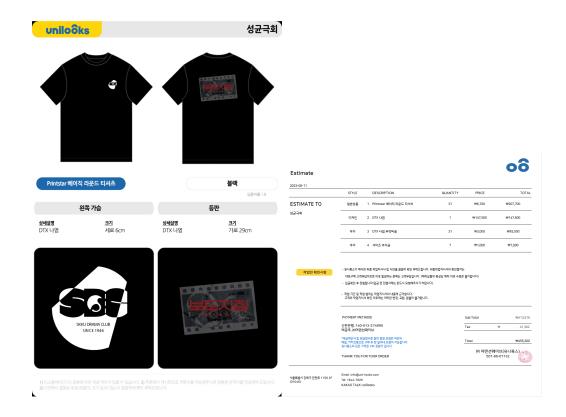
- 최종 마감 기간은 여러 변수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공연 3주전까지로 잡는 것을 추천. 그전까지 시놉시스와 기획/연출의 말도 취합해서 디자인 담당자에게 전달할 것.
- 팜플렛은 공연 4주차 금~토에 걸쳐 찍었으며, 영상학과이신 극회 선배가 촬영해주심. 카메라가 있다면 그냥 동방에서 천을 대고 촬영해도 괜찮음. 컨셉 의상 등은 미리 연출진과 회의하세용.
- 프로필 촬영 일주일 전에 공연진 전체 일정을 수집하여 아래처럼 촬영 일정을 확정

7/23(일)	00:00~00:20 (분)	00:20~00:40	00:40~01:00	
10~11시	유선아	이채연	김태웅	
11시~12시	안시은	강태영		
12시~13시		박단	한광현	
13시~14시	이재욱	구하연	천유진	
14시~15시	김동건	한기주	이현진	
15시~16시	김수영			
16시~17시	전유진	엄정인		
17시~18시	조한상	류가연		
18시~19시				
7/24(월)	00:00~00:20	00:20~00:40	00:40~01:00	
10~11시				
11시~12시		연캐		
12시~13시	윤태우	강민재	강성휘	
13시~14시	박가영	탁현서	김결	
14시~15시	홍주안	이지수	이유진	
15시~16시	백제준	조윤서	임태희	
16시~17시	김지민	금유빈	장선웅	
17시~18시	김효성	심원균		
18시~19시				
* 촬영 장소 : 수선관 3층 영상학과 스튜디오 (61308)				
* 컨셉 의상 : 무지 긴팔 셔츠 (색상 상관 X)				
촬영 배정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서 대기해주세요!				

- 마찬가지로 세포씨네 인쇄소에서 인쇄했으며, 저번 공연처럼 '도련'이슈가 생겨 최종 발주가 이틀 정도 늦어짐 ㅜ.ㅜ 인쇄소에서 요구하는 도련 등의 유의사항을 미리 팜포 디자인 담당자에게 잘 전달해 놓을 것
- 포스터가 도착하면 공연 하루~이틀 전에 극장과 학교 게시판에 붙여놓기. 학교 게시판에 붙이는 것은 학교의 사전허가가 필요함
- 팜플렛 장당 평량을 무조건 200g 이상으로는 해야 팜플렛이 튼튼하게 만들어지는 듯
- 이번엔 오프라인 팜플렛 / 온라인 팜플렛 둘 다 진행함. 온라인 팜플렛은 워크샵때 사용했던 도메인 주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다른 기획팀원이 담당함.

4) 굿즈

- 단체 티셔츠 진행. 다른 것을 진행해도 좋음.
- 팜포와 같은 날짜로 최종 마감 일자를 정했고, 마찬가지로 유니룩스에서 진행
- 최종 마감날짜 하루이틀 정도 전에 유니룩스 카톡으로 문의해보는 것 추천



5) 티켓팅

- 티켓팅 안내는 크게 선배님 문자 / 극회 OB 톡방 /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이렇게 세가지 경로가 있음.
- 먼저 선배님 문자. 공연 약 1주 반 전부터 2번 정도 선배님들께 안내문자를 보냄. 이번에 는 19학번 선배님들에게까지 문자를 발송함.
- 비슷한 내용으로 극회 OB 톡방에도 공연정보와 티켓팅 안내 카톡을 전송



- 인스타그램에는 티켓팅 안내 게시물을 게시하고, 성균극회 링크트리에 티켓팅 링크 게시
- 간혹 폼 제출이 서투르신 선배님들께서는 전화/문자로 티켓팅을 원하시는데, 이럴 경우 친절하게 예매 도와드릴 것
- 공연 일주일 전부터 관람확정문자 발송 시작. 팀원들이 다같이 한 회차씩 맡아서 하면 금방함

6) 카드뉴스

- 공연정보, 스탭 소개, 티켓팅 안내 등 컨텐츠는 생각하기 나름. 기존 게시물에 구애되지 말고 다양한 컨텐츠를 하면 좋을듯
- 이번에는 1주일에 하나에서 두개 게시물 업로드를 목표로 함

7) 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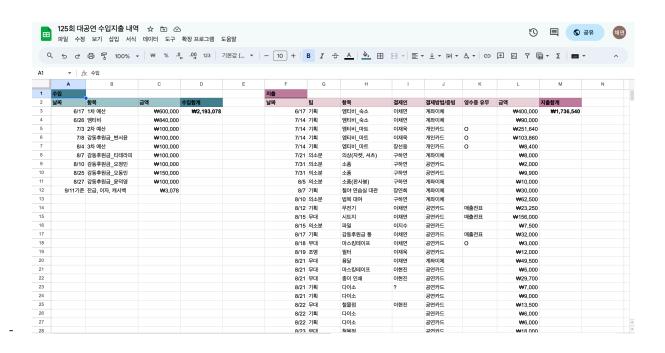
- 공연 3주차 금-토에 걸쳐 오산골펜션에서 진행
- 엠티철이라 공연시작과 동시에 엠티 수요조사를 받아서 펜션을 예약해 놓는 것을 추천
- 게임, 주루마블, 등등등 재미있게 기획해보시길

3. 공연 당일 극장에서

- 미리 매뉴얼을 작성해놓고 팀원들에게 숙지해오라고 함
- 매뉴얼은 아래 참고
- 미리 식사 당번, 상주 인원 정해놓을것
- 이번 공연의 경우에는 극장에 항상 2~3명은 상주해놓았음
- 티켓부스 담당 / 자리안내 담당별 업무도 아래 매뉴얼에 작성했으니 참고바람
- 자리안내의 경우 극장의 상황에 따라 맨 앞열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극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극장에 방문해보고 연출과 이야기 해보기를
- 아!! 그리고 공연이 끝난 후 포토타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놓으면 인원 통제가 편해짐
- 공연 장 좌석 수에서 10석 정도 빼고 넉넉하게 티켓팅 받는 것을 추천함. 이번 막공에는 에매 인원이 거의 꽉찼음. 그래서 입장할 때 팜플렛에 좌석을 지정해줌.

4. 공연 후

- 막공 날짜 일주일 정도 전 뒷풀이 장소 예약 ,이번 뒷풀이는 포차야에서 진행했고, 다른 곳에서 진행해도 무방
- 공연진과 찍은 단체 사진 정리 ~ 그리고 뒷풀이 정산
- 수입지출 내역 정리. 공연 당일 극장에서 급격히 소액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에 정리가 매우매우 힘드므로 미리미리 해놓으면 좋음. 저는 그러지 못했지만요... (아래 사진 참조)



기획팀 공연장 매뉴얼

1. 극장 정리 (공연 전)

- 일반쓰레기 봉투 / 재활용 봉투 구비
- 쓰레기 분리배출
- 공연 직전 쓰레기 봉투, 공연진 짐 등 안보이는 곳으로 치우기
- 객석과 무대 쓰레기 정리
- 스탭들/캐스트들 필요한 물품 있으면 사다주기 (공연카드로 결제, 불필요한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 후 팀장에게 청구, 영수증 보관)
- 가까운 편의점 / 철물점 (현대전기철물) / 약국 (정민약국/행운약국) 위치 파악 해놓으면 좋음
- 카페 음료, 쓰레기 제대로 안치우는 공연진 혼내기

2. 관객 안내

A. 티켓부스

- 공연 시작 30분 전부터는 티켓부스에서 대기하며 극장 안으로 관객들이 들어 가지 못하게 해야함
- 공연 시작 15분 전, 즉 관객 입장 시작 시간이 되고 팀장의 허가가 떨어지면 관객입장 시작
- 관객분에게 인사 -> 성함 여쭤본 후 관객 명단과 대조하여 명단에 체크
- 명단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확인되셨습니다,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인 원수만큼 팜플렛 배부
- *미리 예매를 하지 않은 관객에 대해*: 전체 좌석수 90석 중 잔여좌석이 남아 있다면 공연 시작 10분 전부터 현장 예매가 가능. 관객의 성함/전화번호를 관객명단에 기록해두고 입장 진행. 잔여좌석이 없는 경우 예의 바르게 거절.
- 공연 시작 후 들어오는 관객에 대해: 장면 중일때!! (즉, 조명이 켜져있을때) 중간 입장이 가능함. 이런 경우 자리까지 직접 안내해주고 와야함. 암전 중인 경우 조명들어올때까지 대기했다가 극장 입장. 이 경우를 대비해 자리 안내시 관객석 입구와 최대한 가까운 쪽의 객석은 5석 정도 남겨두었으니 그 자리로 다른 관객들의 관람에 피해가 가지 않게 조용히 안내.

B. 자리 안내

- A를 거친 손님이 들어오면, 자리를 안내함
- 맨 앞줄 제외하고, 뒷줄부터 우선적으로 자리 안내
- 맨 뒤 연출과 조연출 2석은 제외하고 앉히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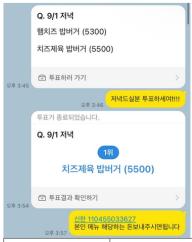
- 관객석 입구와 가장 가까운 쪽의 객석은 5석 정도 남겨놓기 (늦게 입장하는 관객을 위해)
- 자리 안내를 마친 팀원은 관객입장 마감 후 대기실(있다면?)이나 티켓부스에 서 대기

회차	A 티켓부스 담당자	B 자리안내 담당자
1회차 (8/24 19시)	홍주안	금유빈, 강민재
2회차 (8/25 14시)	강민재	이유진
3회차 (8/25 19시)	강성휘	강민재
4회차 (8/26 14시)	전유진	강성휘
5회차 (8/26 19시)	강성휘	전유진
6회차 (8/27 14시)	금유빈	김동건
7회차 (8/27 19시)	홍주안	이유진

14시 회차 담당 : 10시반 출근, 3시반 퇴근19시 회차 담당 : 3시반 출근, 8시반 퇴근

3. 식사 주문

- 점심 식사 목표시간 11:30, 저녁 식사 5:00이므로 50분~1시간 전에는 시켜야 함
- 시키려고 했던 식당이 휴무인 경우도 있어서 대체 식사를 생각해놓거나, 주문 3시간 전 미리 영업 유무 알아보기
- 시키기 15분 정도 전에 [125회 대공연 잡담방]에 투표 올리고 임의로 메뉴 3 개 정도 선택해서 업로드. 메뉴는 최대한 간단하고 치우기 쉬운 것으로 선정 할 것 (국물류 자제, 덮밥류 좋음)
- 극장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식사 투표하라고 알려주기. 투표시간 지나면 얄짤 없이 컷.
- 개인카드로 결제 후 투표한 공연진들에게 개인적으로 정산받으면 됨. 혹은 식 사별로 톡방 파는 것도 ㄱㅊ. 배달팁은 따로 팀장에게 청구.
- 아래에 투표 업로드 예시 사진 첨부. 각 메뉴별로 가격 써야함.



날짜 / 점심 or 저녁	메뉴	담당자
8/24 점심	한솥	
8/24 저녁	이삭 토스트	홍주안
8/25 점심	김가네 김밥	이유진
8/25 저녁	맥도날드	강민재
8/26 점심	봉구스	전유진
8/26 저녁	지지고	강성휘
8/27 점심	밥은화 직화덮밥전문점	금유빈
8/27 저녁	밀플랜비 고려대점	김동건

- 식사 후 공연진들이 어느정도는 스스로 치우지만 최종적으로 정리 필요.

4. 퇴근

- 출근해서 썼던 물품들 티켓부스에 고대로 반납하고 가기 (무전기, 네임펜, 관객명단 등)
- 극장 전체적으로 점검

5. 마치며

국회와 세 번째 여름을 함께하며 벌써 다섯번 째 준비한 공연입니다. 캐스트 막내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기획팀장이 되어 후배들을 챙겨줘야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 미숙하고 서툰 부분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획 업무가 두 번째라서 작년에 비해 너무 안일하게 마음 놓고 있지 않았나.. 하는 죄송함도 듭니다.

저는 방학동안 매주 키스탭 회의하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은세, 연희, 유진언니, 선웅이, 현진오빠, 하연이 정말 정말 수고 많았다~~~

인수인계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물어볼 게 있으시다면 010-6278-3790으로 연락이든 뭐든 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공연을, 극회를 이끌어가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